

## 지구의 별난 세상, 에게海

김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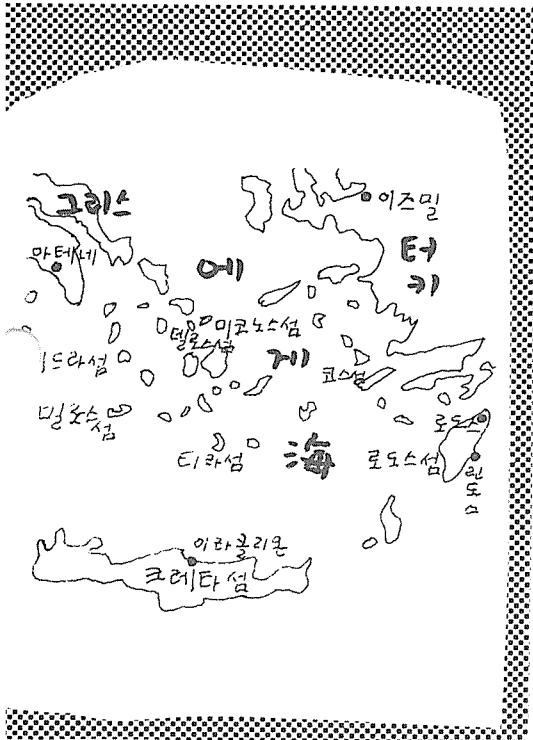
### ● 4천년전 궁전 발견된 크레타섬

에게海에는 1,425개의 섬이 있다. 문자그대로 다도해(多島海)다. 그런데 이들 섬들이 제각각 다른 매력과 드라마를 가지고 있어, 방문할때마다 아주 먼 딴 세상을 찾는 느낌이 든다.

가장 큰 크레타(Kreti)섬은 古代 로멘티즘에 충만한 섬이다. 넓이가 8,400km<sup>2</sup>로 충청남도(8,710km<sup>2</sup>)와 비슷한 이 섬은 4천년전에도 이미 고도의 문화를 꽃피운 크레타 문명(인류문명의 발상지설이 있을 정도)의 유산이 도처에 남아 있다.

### ● 신비의 「크눅소스」궁전과 미노아文明

이라클리온市 남동쪽 교외에 있는 크눅소스궁전은 신비의 미노아문명을 낳은 중심지다. 이 궁전이 처음 세워진 것은 4천년 전이러는데, 몇차례의 지진과 화재로 파괴, 재건을 되풀이하다 기원전 1400년 이후 약 3천4백년간 땅속에 매몰되어 있다가 20세기 초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한바 있다.



에게海는 지구의 별세계다. 사람, 집, 풍물이 어쩐지 이 세상과는 다르다. 하늘빛, 바닷빛도 틀리다. 페인트를 통채로 업질러 놓은 것처럼 진한 것이 특징이다.

집은 흰색이다. 햇빛도 틀린다. 너무 맑고, 밝아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손으로 잡으면 잡힐것 같다. 고희의 그림을 보면 햇빛이 빗줄기처럼 쏟아지고 있다. 에게海에 오면 고희가 아니라도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햇빛줄기가 보인다.

사람들은 중세때의 사람들 같다. 옷은 허술구레하게 입고, 표정은 조금쫂 바보스럽다. 너무 악의가 없기 때문일거다.



▲히포크라테스의 聖域 「아스클레피오스」. 코스섬은  
히포크라테스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궁전은 중정(中庭)을 가운데 두고, 동서 양쪽으로 건물군(建物群)이 있었는데, 사방 160m나 되는 거대한 궁전이다.

내부에는 왕의 침실, 신전, 살롱, 보물창고, 식당, 성수(聖水)풀, 왕비의 방, 욕실, 극장, 경기장등이 있다. 옥좌, 왕비욕실, 대계단등은 원형 그대로 생생하게 보존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색채다. 특히 주황색같은 색은 방금 칠한 것처럼 선명하다.

궁전의 지하에는 미로처럼 엉킨 복도가 있다. 「환상의 궁전」이란 바로 크눅소스궁전을 두고 한 말 같다. 이 궁전 구경을 하려면 죽히 반나절이 걸린다.

패스토스궁전도 20세기초에 발굴된 또 하나의 왕국이다. 크눅소스 궁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이 궁전은 그 구조나 모습이 크눅소스와 많이 닮았다. 이라클리온市的 서쪽에는 마리아궁전이 있다. 미노아의 3대 유적들이다.

#### ● 「크레타인 같은 사람」

인구10만의 이라클리온市는 크레타섬의 현관이다. 도시가 작아 걸어서 구경해도 잠깐이면 된다. 이 도시는 베네찌아인이 쌓았다는 성벽이 도시를 한바퀴 빙 둘러싸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성벽중 세계에서 가장 긴 성벽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성벽의 바깥 둘레에는 도랑(칸디아)을 깊이 파, 외적의 침입을 막았다. 시내에는 중세때의 분수, 성당, 광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꼭 봐야할 곳은 고고학박물관이다. 크레타섬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이후의 출토품이 전시되고 있는데, 그리스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크레타인은 순하고 성실하다. 그리스에선 「크레타인 같은 사람」하면 온후하고 정직한 인물로 인상지어지고 있다.

● 에게해의 백보석, 키클라데스

에게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면 키클라데스(kyklades)섬군을 꼽는다. BC27~12세기 사이 독자 문명을 가졌던 이 섬들을 가리켜 「에게해에 뜬 백보석」이라고까지 칭송한다. 하얀색의 2층 돌집이 가장 인상적인데, 바다에서 보면 장난감 도시처럼 예쁘게 보인다.

키클라데스 섬군의 주도(主島)는 미코노스다. 올릉도 크기만한 작은 섬 미코노스는 2천년전부터 로마인의 리조트지기로 유명하다. 지금도 세계각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와 인구 4천명의 이 작은 섬은 언제나 붐빈다.

이 섬에는 이상한 풍차가 있다. 마치 세워놓은 무처럼 생긴 창고에 실감은 물레같은 앙상한 바람가지가 달렸다. 하얀 담벽 사이의 좁은 골목길을 들여다보면, 어디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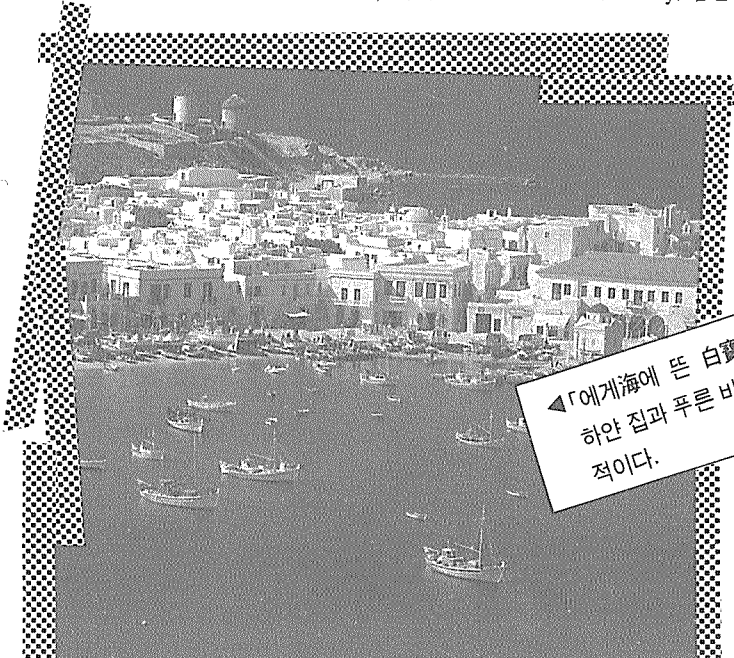
가 많이 본것같은 수영부리 할아버지가 걸 어오고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큰 길에는 살이 통통 찐 페리칸이 유유히 산책을 즐기고 있다.

페리칸은 이 섬의 마스코트다. 이 섬에는 365개의 교회가 있다. 하루 한곳씩 가면 꼭 1년 걸린다.

미코노스섬 바로 곁에 지도에도 안보이는 작은 섬이 1개 있다. 델로스(Delos)섬이다. 이 섬에는 옛날 아폴론신전과 성호(聖湖)등의 고대유적이 온 섬에 가득하다. 일반 민가는 없다. 이름만 호수일뿐 물은 하나도 없는 성호 호변에는 이상한 돌사자가 있다.

● 「밀로의 비너스像」이 나온 밀로스섬

밀로스(Melosy)섬은 「밀로의 비너스」로



◀ 「에게해에 뜬 白寶石」이라는 미코노스섬. 하얀 집과 푸른 바다와 새파란 하늘이 인상적이다.

고호의 그림을 보면  
 햇빛이 빗줄기처럼 쏟아지고 있다.  
 에게해에 오면 고호가 아니라도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햇빛줄기를  
 볼 수 있다.

널리 알려진 섬이다. BC416, 아테네와의 전쟁 때, 남자들은 전부 학살당하고 부녀자는 노예가 되었던 비극의 역사를 지닌 섬이다.

밀로의 비너스상은 1820년, 올리브나무밭에서 농부가 우연히 발견, 전세계에 화제를 뿌렸다. 이 섬에는 카스트로성채, 고대극장, 카타콤베(지하무덤)등의 유적이 있다.

키클라데스섬군 중 가장 남쪽에 있는 티라(일명 산토리니)섬은 「불을 뿜는 섬」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섬에는 전설속의 「아틀란티스王國」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화산섬이기 때문에 고대건축물은 거의 남은것이 없다.

이섬에는 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고 미노아 文明과 버금가는 키클라데스 文明이 있었다는 증거가 자주 발견되어 아테네 대학과 미국의 특별조사반이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진행중이다. 지형이 험하고 비탈길이 많아 이 섬의 교통기관은 로바가 이용되고 있다.

#### ● 장미란 뜻의 「로도스」섬

터어키의 영해부근에 바짝 물려있는 도데카니사 섬군은 관광객의 천국이다. 전세계의 모든 상품이 이곳서는 면세이기 때문에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관광객이 특히 많이 찾아온다.

도데카니사(Dodekanesa)는 그리스어로 「12개의 섬」이나 실제로는 14개의 섬이 있다. 수없이 많은 섬들이 점처럼 사방에 깔려 있으나 그중 40%는 무인도다.

아시아에 가까운 때문인가, 오리엔탈 분위기가 충만한 것이 다른 섬과 다르다. 주도(主島) 로도스섬은 그리스가 아끼는 2대 국제 관광지의 하나다. 너무 아름다워 섬 이름도 「장미」란 뜻의 「로도스(Rhodos)」다.

동로마제국, 사라센, 베네치아, 십자군, 터어키, 이탈리아, 나치독일등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아, 이 섬의 역사는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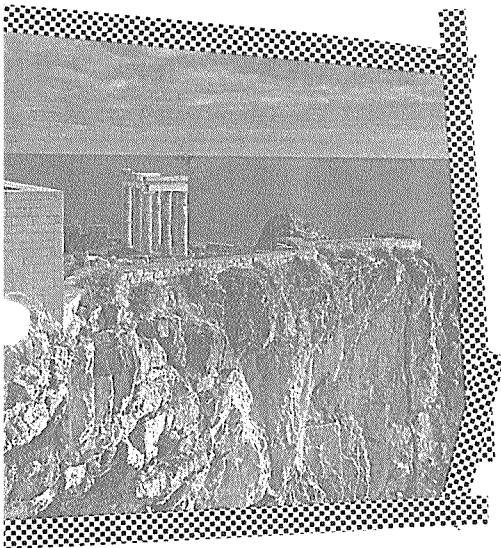
그러나 에게해의 교통요지라 무역중심지

로 크게 변형을 누렸고, 근래에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인구3만의 로도스市는 구시가(올드아고라)와 신시가(모던 아고라)가 있는데, 구시가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성벽은 중세때 성요하네기 사단이 쌓은 것인데, 성내에는 기사단시대의 유적이 많다. 이탈리아 국왕과 독재자 무소리니가 살았다는 영주관(領主館)도 이 안에 있다.

이 도시의 명물은 만다라키 방파제에 있다. 거대한 2개의 돌기둥 꼭대기에 청동제 사슴像이 있는데, 원래는 이곳에 세계7대불가사의의 하나였던 「태양신 헤리오스像」이 있었다.

높이 32m로 세계최대의 입상(立像)이었



▲린도스의 아크로폴리스 성벽. 높이 116m의 이 암벽은 「나바론의 요새」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다고 하는데, 지진때 파괴되었다고도 하고 침략군에게 약탈되었다는 설도 있다.

로도스市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린도스가 있다. 영화 「나바론의 요새」의 무대가 된 도시다. 116m높이의 아크로폴리스성벽은 좁은 계단도로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로바를 타고 갈수도 있다. 도중 암벽에는 노예선의 부조(浮彫)가 있다.

### ● 히포크라테스 탄생지 코스섬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코스(kos)섬은 강화도 크기만한 섬이다. 헤레니즘, 비잔틴을 비롯, 중세, 터키시대의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바다쪽 암벽에는 6백년이 넘는 거대한 푸라타나스가 있는데 이 나무 그늘에서 히포크라테스가 강의를 했다하여 「히포크라테스의 푸라타나스」란 별명을 붙였다.

지금은 넘어지지 않게 대리석으로 가지를 받쳐주고 있다. 시내에는 기사단의 성과 올드아고라가 있는데, 1933년 지진때 유적들이 노출되어 아고라인을 확인하게 되었다.

코스市의 남쪽 교외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유적이 있는데, 히포크라테스가 현대의학을 탐구, 기초를 닦은 성역(聖域)이다. 재미있는 것은 로마목욕탕의 유적인데 파이프온돌로 난방을 했다. 파이프온돌의 시초는 한국이 아니라 이곳이었다.

〈필자 = 해외의학 교류회장 · 최신 여행 정보 발행인〉